

새해 전자·정보산업 기상도

산업연구원(KIET)은 올해에 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은 올해처럼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자부품은 수출급증과 엔蒿의 지속으로 내수와 수출면에서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95년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도 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의 기상도를 그려본다.

가전 특소세인하등 호재 11% 성장

올해 모두 1백26억2천5백만달러어치를 생산, 12.7%(추정치)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해 90년대 이후 최고의 성장을 기록한 가전산업은 내년에도 11%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세계 경기의 회복에 따른 수출환경의 호조와 내수 확대가 그 발판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원화의 절상 및 외국기업의 국내시장진출 가속화, 폐가전품의 회수·처리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의 강화 등으로 전체 성장률은 얼마간 둔화될 전망이다.

전자정보산업 수급전망

		1994	1995		
			상반기	하반기	소 계
전자부품	생산	25,417(48.7)	13,771(26.9)	16,494(13.2)	30,265(19.1)
	수입	9,585(25.9)	5,001(13.6)	5,755(11.0)	10,756(12.2)
	내수	17,326(26.8)	9,039(19.9)	10,495(7.3)	19,534(12.7)
	수출	17,676(60.0)	9,733(26.3)	11,754(17.9)	21,487(21.6)
정보통신기기 및 산업전자	생산	9,443(15.6)	4,770(13.1)	5,937(13.6)	10,707(13.4)
	수입	5,219(37.5)	2,698(14.7)	3,340(16.5)	6,038(15.7)
	내수	9,410(33.8)	4,700(14.6)	6,173(16.3)	10,873(15.5)
	수출	5,252(6.6)	2,768(12.2)	3,104(11.4)	5,872(11.8)
가 전	생산	12,625(12.7)	7,141(12.2)	6,874(9.8)	14,015(11.0)
	수입	970(13.3)	521(15.0)	597(15.5)	1,118(15.3)
	내수	6,597(13.9)	3,984(14.8)	3,465(11.0)	7,449(12.9)
	수출	6,998(11.9)	3,678(10.0)	4,006(9.7)	7,684(9.8)

※ 94년은 축정치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 대비, %)

멀티PC중심 컴·통신분야도 호조

내수호조가 지속되고 수출도 일마간 회복돼 활발한 생산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상반기엔 컴퓨터부문의 수출회복세가 반영돼 올해보다 12.2% 늘어난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

인다. 내수도 멀티미디어 PC를 중심으로 컴퓨터와 통신기기의 판매가 호조를 띠 것이다.

특히 96년도 실시 예정인 제2이동전화사업 준비에 따른 수요확대가 예상돼 상반기의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각 부문에서 내년엔 모두 1백7 억7백만달러어치가 생산, 올해보다 13.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컴퓨터와 통신기기 외에도 계측기 등 산업용기기부문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는 정부와 업계의 정보화 투자확대가, 통신기기는 이동통신 관련기기와 케이블TV 관련 장비수요 증대가 수입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자부품산업

반도체, 다층PCB 등 핵심부품

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설비투자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적인 공급부족, 엔高, 중국 등 개도국의 가전생산 증산등 부품산업 성장의 호재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휴대폰, 페이저등 이동통신기기의 내수시장 팽창으로 관련부품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단층PCB·콘덴서·저항기·스피커·스위치 등 일반 범용전자부품은 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베트남·멕시코 등으로 진출

할 것으로 보여 수출증가율은 올해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상반기엔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26.3%의 생산 증가율이 기대된다. 내수도 정보통신기기 보급 증가와 가전수출 증가에 힘입어 19.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엔 16메가D램의 생산 증가, TFT LCD의 생산 본격화, 가전 및 케이블TV 관련부품의 내수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 수출 17.9%, 내수 7.3%, 생산 13.2%, 수입 11% 증가율 달성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웃으며 살아갑시다

비닐 하우스

영어시간, 선생님이 맹구에게 질문을 했다.

“맹구야, ‘하얀 집’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예, ‘화이트 하우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놀라며) “그럼 ‘푸른 집’은 뭐라고 하지?”

“예, ‘블루 하우스’라고 합니다.”

“정말 기특하구나, 그럼 ‘투명한 집’은 뭐라고 하지?”

맹구가 망설이는 사이 오서방이 끼어 들었다.

“예, ‘비닐 하우스’입니다.”

습관은 못속여

고스톱을 좋아하는 등산가가 산을 오르다 낙엽 두 장을 집었다. 그리고 말했다.

“장땡이군.”

자식보다 돈이 먼저

한 부자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큰아들이 들어와 더듬거리며 말했다.

“처녀 하나를 망쳐 놨는데 2천달러를 주면 입을 다물겠대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수표에 막 서명했는데 그 때 둘째녀석이 들어오더니 똑같은 문제를 털어놓았다.

다시 수표를 쓰고 있는데 막내딸이 울면서 나타났다.

“아빠,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아, 이번엔 우리가 수금할 차례구나.”

그는 희색이 만면하여 소리쳤다.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아쉬움을 표하는 소리 : A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 B

기분 나빠 내뱉는 소리 : C

사람의 오복 중의 하나 : D

감기환자의 재채기 소리 : E

상대방을 깔보는 소리 : F

암탉이 품고 있는 것 : G

가볍게 입는 옷 : H

두마리 개미

개미 두 마리가 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마침 코끼리 한 마리가 나무 밑에 있었는데 개미 한 마리는 땅에, 한 마리는 코끼리 등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진 개미가 소리쳤다.

“야, 나 밟히겠어. 빨리 목졸라”

등에 있는 개미가 말했다.

“목이 잘 안잡혀. 네가 발걸어 넘어뜨려!”